

‘2대현호’ 어선사고,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5일(금) 시간미상 제주 서귀포 온평항 약 1.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연안복합 ‘2대현호(7.93톤)’ 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, 인근선박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4명 중 3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서 구조되었으며, 실종된 1명은 해양경찰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에서 구조작업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11. 15.(금) 시간미상 제주 서귀포 온평항 약 1.5해리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‘2대현호’ 전복

* 총톤수 7.93톤, 제주 선적, 4명 승선

△ (16시 25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